

특 집

여성 에세이를 통해 본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

- 「말의 귀환」과 「여성의 글을 쓴다는 것은」을 중심으로

이주미

국문초록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상적 조류의 확산과 함께 여성의 글쓰기가 활발해지면서 오늘날 우리는 여성 에세이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여성은 이성중심주의 및 합리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지배규범에 반발하여, 에세이라는 자유로운 글쓰기 방식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가고 있다.

이 글은 김정란의 「말의 귀환」, 『거품 아래로 깊이』, 김혜순의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을 중심으로 에세이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을 살피고 있다. 이들의 에세이는 매우 지적인 작업으로서, 여성성의 본질과 여성의 말의 특징을 해명하고 나아가 여성적 글쓰기 방식을 전략적으로 제시해준다. 이를테면 김정란은 여성의 말이 비록 분열되고 파열된 상태로 발화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미친' 언어로 취급될지라도 남성적 언어에 동화되지 말고 그 다양성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김혜순은 '바리데기 연회'를 구연하듯, 여성의 말도 대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여성성을 창조하고 완성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의 에세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성 시인이 에세이라는 산문적 장르에 **가세함으로써** 시적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편지나 자전적 에세이 등을 **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에세이의 운문적 속성이 강해지면 그것은 상상계적 언어,

혼자만의 언어에 머물기 쉬운데, 이러한 위험성을 모면하게 하는 것이 여성 에세이가 지닌 또 다른 특징인 구비문학적 속성이다.

여성의 말의 확산은 사회 문화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섬세한 경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어야 하며, 겉으로 드러난 여성의 말과 글에서는 그 안에 담긴 풍부한 메시지들을 읽어내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에세이, 여성성, 상상계, 상징계, 운문, 대화, 여성적 글쓰기

1. 들어가는 말

담론의 성격에 따라 사회 권력의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푸코의 통찰을 전제로 하였을 때, 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적 저항담론이나 다양한 소통방식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가치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상징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기표들은 다만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를 통하여 '소급해서' 잠정적인 기의를 얻게 된 것뿐이라고 보는 라캉의 견해나, 기표는 연기되는 기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의 이동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한다는 데리다의 견해는 여성의 담론, 나아가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담론에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들어 부쩍 눈에 많이 띄는 여성 에세이¹⁾는 여성의 생물학적·사회 문화적

1) 여성 작가의 에세이 못지 않게 많은 남성작가의 에세이들이 근자에 쏟아져 나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여성 에세이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그 양식 또한 다채로워졌다는 점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혜석의 『이혼고백서』를 비롯하여, 박완서나 김승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수의 에세이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공지영의 『상처없는 영혼』, 신경숙의 『아름다운 그늘』과 같은 자전적 에세이뿐 아니라 강석경의 『능으로 가는 길』과 같은 기행 에세이, 신현림의 『나의 아름다운 창』과 같은 영상 에세이, 김정란의 『말의 귀환』과 같은 사회비평 에세이 등이 가세하여 실로 에세이 장르의 전성기를 이루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

가치가 서구적 합리성과 가부장제적 권위주의에 의해 단지 잠정적으로 규정되어 왔을 뿐임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이를 다시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시도로 읽힐 수 있다.

에세이는 그 장르의 속성상 삶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텍스트를 통하지 않으면 진실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여성이 에세이를 통해, 자신에게 부당하게 적용되어 온 남성 중심주의 논리를 문제삼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생생한 삶을 자료로 한 글쓰기 방식이기 때문이다. ‘에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몽테뉴(『Les Essais』(1580))에게 있어서도 에세이는 사적 영역을 소재로 한 글쓰기, 자신의 결점까지 그대로 드러내는 진솔한 글쓰기 방식이었다. 그러나 차츰 에세이가 서구적 합리주의에 복종하는 장르로 변조되었는데, 그 새로운 기원은 베이컨에게서 찾을 수 있다. 베이컨은 자신의 『The Essays』(1597)에 짧고 재치있는 금언을 동원하여 처세술과 성공 방법과 같은 실용적인 지혜들을 제시함으로써 에세이를 세계 경영에 필요한 덕목을 전수하는 지침서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에세이가 본래 세계를 일정한 구도 속에 포획하는 방법과 기술을 전수하는 지침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표명하는 고백서와 같은 것이었음은 그 어원에서부터 알 수 있다. ‘에세이’의 어원인 라틴어 ‘엑시게레’(exigere)는 ‘맛보다, 계량(計量)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접촉성, 직접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성이 에세이 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육체와 경험이 바로 이러한 직접성, 접촉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세이를 여성적 글쓰기라 할 때, ‘여성적’이라거나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남성도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가치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여성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부추기는 ‘남성적’ 가치에 억압되어 왔으며, 그래서 그들도 에세이라는 글쓰기 방식을 통해 이 지배적인 가치

다.(이 글은 여성의 ‘말’의 구체성을 살피기 위해 김정란의 『거품 아래로 깊이』(생각의 나무, 1998), 『말의 귀환』(개마고원, 2001), 김혜순의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문학동네, 2002)를 대상으로 하였다.)

를 전복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좀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에세이는 '여성적'인 글쓰기이기 이전에 '여성'이 글쓰기에 적합한 장르이다. 왜냐하면, 형식과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글쓰기, 구체적인 삶을 소재로 한 글쓰기라는 에세이의 상식적인 정의가 여성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 특별함은 여성이 경험해온 억압이 남성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가해진 억압은 보다 근본적인 것이었다. 프로이트는 성인의 심리가 유아의 성심리 발달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여성성을 해석하면서 남성 중심적 관점을 여성의 성심리 발달에 투사시킴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리가라이는,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의 돌출된 페니스를 '보고' 거세 콤플렉스를 느낀다고 했던 프로이트의 입장에 대해 '여성은' 시선보다는 접촉을 더 즐긴다'라고 반박하면서 여성의 생물학적 본질을 다시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시각을 중심으로 한 남성적인 인식에 의하면, 여성의 성기는 아무 볼 것이 없으므로 여성은 없는 존재이거나 결핍된 남성으로 불완전하게 존재할 따름이다. 그러나 여성은 이리가라이가 강조한 바와 같이 몸의 도처에 성감대를 지녔으므로 남성과는 다른 방식, 즉 촉각적 텍스트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자신이 접촉하고 있는 일상의 경험을 낱말이 드러냄으로써만 존재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과 에세이의 친화성은 여기서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여성 작가의 소설에서 여성 인물들이 에세이를 쓰는 장면을 목격한다. 가령 오정희의 소설 「야회」에서 평범한 주부인 명혜가 부엌의 선반에 노트를 놓아두고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인상들을 짙막하게 기록해나가는 것도 에세이이며, 신경숙의 「베드민턴 치는 여자」에서 꽃집 점원이 유리 너머로 보이는 삶의 자취를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에세이이다. 그들의 에세이는 개인적인 추억, 일상의 경험, 환상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것이 현실에 대한 묘사이든 심리적 정황에 대한 묘사이든 간에 그들은 '미리 가

2) 뒤스 이리가라이, 이은민 역, 『하나이지 않은 성』(동문선, 2000), p.34.

정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펜 끝에서 '다시 씌어지는'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다.

2. 여성 에세이의 사회적 맥락

에세이라는, 이 자유로운 글쓰기 방식은 그것을 전유하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회의 지배적 담론의 성격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어 왔다. 오늘날 여성 에세이가 범람하고 있는 현상은 그것을 권력 이동의 징후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러한 여성의 글쓰기를 통해 사회 문화적 구조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 에세이는 순수한 예술적 충동이나 계몽적 동기에 의해서 씌어지지 않는다. 여성은 다만 에세이를 통해서 자신의 실존적 자각, 주제적 삶의 확장을 기도할 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은 지식과 권력을 전유한 남성들로부터 '타자'로 취급되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거부당해 왔다. 보바르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다'고 했듯이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일찍이 프로이트도 여자란 무엇인가를 묘사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즉 양성적 소질이 주어진 한 어린아이로부터 어떻게 여자로 발전되어 가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는 여자아이의 클리토리스를 이미 거세된 페니스로 전제함으로써 결국은 여자아이가 여성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무리하게 남성의 거세공포증을 투사하고 말았다. 그 연장선에서 프로이트는 여자 아이가 갖게 되는 '페니스 소원은 그 자체로서 차라리 근본적인 여성성으로 인식해야'³⁾ 한다면서 수동성, 시기심, 질투심, 수치심, 허영

3) 프로이트, 임흥빈·홍혜경 역,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열린책들, 1996), p.183.

심, 경직성, 불변성, 나르시시즘적 경향 등⁴⁾을 여성의 생물학적인 본성으로 취급했는데, 이는 물론 '페니스 선망'과 결부되었을 때에만 성립되는 설명이다.

프로이트는 여자아이가 자신에게 완전한 페니스를 선물하지 못한 어머니를 증오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설 때에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여성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왜 "남성은 자신의 남성이라는 존재를 성취할 뿐이지만, 여성은 정상 여성으로 변해야"⁵⁾ 하는가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그는 분석적 치료자의 입장에서 단지 현상을 묘사할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만을 되풀이할 뿐이다. 여성성에 대한 프로이트 이론의 결정적인 오류는 현상이 지닌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여성은 남성 주체들에 의해 규정되어 온 언어를 매개로 여성성을 학습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여성 자신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구할 수 있는 수치나 통계, 현상들은 사실상 여성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남성에 의해 여성성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실증적 자료들은 사회적 담화를 주도해온 남성들이 자기 투사적인 환상에 전능한 아버지의 법을 적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짓을 합리화하는 자료로 기능하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말을 하는 것은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가부장적, 식민적, 총체적 담론'의 횡포에, 그리고 '과학적 지식과 역사 발전의 대서사가 기도하는 총체성과 그 권력효과'⁶⁾에 대항하는 강력한 이의 제기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거짓말'의 폐쇄회로 안에서 생산된 것이

4)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른 심리적 결과」(1925)(『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pp.11~24), 「여성의 성욕」(1931)(『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pp.197~223), 「여성성」(1933),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pp.158~192 참조.

5) 위스 이리가라이, 앞의 책, p.176.

6) 콜린 고든 편, 홍성민 역, 『권력과 지식-미셸 푸코와의 대담』(나남, 1991), p.117.

다. 거짓말이 좀더 교묘한 거짓말을 낳고, 좀더 교묘한 거짓말은 좀더 타락한 거짓말을 낳고, 좀더 타락한 거짓말은 돌이켜 자신의 추악함을 고백하는 대신에 '환상'의 거품 속에다 썩고 썩은 자신의 환부를 숨겼다. 『거품 아래로 깊이』, p.260.)

자아 소외의 양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자아 소외를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상은 '언어'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소외의 모든 형식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상징을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로 귀결되는 것이다.

개인의 언어는 이제 없다. 모든 상징은 조작되어 주어진다. 개인에게는 개인의 아이콘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모든 것은 바깥에서 외적 형식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주어지는 아이콘은 언제나 충일을 가장한 까자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산업사회의 개인들은 그 아이콘을 향해 넋을 빼고 살아간다. 『거품 아래로 깊이』, p.266.)

김정란의 에세이에 나타난 글쓰기는 한 마디로 '지적 구축과 내적 직접성의 통합'을 꾀한다. 그녀는 신과 아버지,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던 단일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무너진 시대에 작은 말들이 무수하게 솟아나오고 있음을 관찰하고 이를 말의 '귀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거품 아래로 깊이』와 『말의 귀환』에서 김정란은 지식인의 역할과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한편으로는 권력과 유착된 거짓말의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부로 밀려났던 '여자의 말' '미친 말' 등의 위상을 복원시킴으로써 자신도 지식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요컨대 여성으로 말하는 것은 여성의 생물학적 본질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일이며, 그것의 긍정성을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구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 역사 다시 쓰기는 다음의 두 가지 작업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버지의 법이 무시한 '어머니'와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여성의 근본을 다시 밝히는 일과, 둘째 권력 투쟁의 장인 사회 담론에 뛰

어들어 지배적인 담론을 교란시키고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 그것이다. 최근의 여성 에세이는 시적인 글쓰기, 그리고 대화적인 글쓰기를 지향함으로써 그러한 전략을 구체화한다.

3. 시적 언어의 활용

최근 여성 에세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인의 글이 많다는 점이다. 에세이는 본래 산문문학의 한 갈래이며, 문장 수련이나 인생의 달관, 격조 등을 중요시하는 장르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 여성 시인들이 에세이 쓰기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에세이는 운문적인 성격을 많이 띠게 되었다. 여성 에세이에 나타나는 시적 특질은, 여성의 말이 여성의 상황이나 경험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 되지 말고 여성의 경험 그 자체여야 한다는 자각과 연관되어 있다. 지금까지 남성은 자기 언어의 틀에 맞추어 세계를 창조해 왔다. 반면에 세계의 창조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한 여성은 말이 되어보지도 못한 자신의 무정형의 소리 덩어리를 조용히 목젓 아래에 가두어 두어야만 했다. 입때껏 글을 쓰는 여성들이 주로, 침묵을 강요받았던 자신의 경험들에 관심을 기울여온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여성 에세이에서는 강요된 침묵보다는 침묵을 강요받기 이전의 침묵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짐작하고 있는 바와 같이 침묵은 상황적 조건에 따라 여러 갈래의 성격으로 갈린다. 첫째 사회적 의사소통을 거절하는 수단으로서의 침묵, 둘째 외부의 억압에 의해 강요받은 침묵, 셋째 침묵을 강요받기 이전의 침묵이 그것이다. 자발적인 침묵은 권리의 행사이며, 나름대로 세계를 해석한 이후에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러나 강요된 침묵에는 해석도 선택도 배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말할 권리를 박탈당해 왔으므로 여성이 이러한 침묵을 문제삼는 것은 곧 억압의 주

체와 억압의 방식을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80년대 이후의 여성문학이 주로 이 두 번째 의미의 침묵을 복원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는 여성이 침묵을 강요받기 이전의 침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 침묵 속에 여성성의 긍정적인 자질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어로 발화되지 못한 침묵은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무가치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무의식이 언어화되어 있듯이 침묵 또한 언어화되어 있으며, 침묵의 언어는 다만 포편적인 목소리를 얻지 못했을 따름이지 여전히 주체의 고유의 것으로서 그 주체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의 귀환』에서 김정란이 ‘여자의 말’을 가지라고 하면서, 여성에게 오히려 침묵하기를 권유하는 것은 여성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침묵의 내용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침묵을 권하고 싶다. 침묵하라니? 그렇다면 그건 앞서 당신이 비난했던 인어공주처럼 하라는 뜻이 아닌가? 아니,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일상생활 안에서는 당당하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수다까지 권한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말까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내가 원하는 침묵은, 일상적이 의미의 언어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내밀한 내면의 언어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침묵이다. 여성은 누구나 자신의 안에 아주 중요한 깊은 내면을 가지고 있다. 그 내면의 언어는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신비한 말들로 가득 차 있다. 오히려 시끄럽기마저 하다. 그 깊은 내면과 대화하는 방식을 배워야만 진실로 ‘여자의 말’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도 교양도 필요 없다. 여성들은 타고난 특별한 자질에 의하여 누구나 다 자신의 몸 속에 그 특별한 언어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말의 귀환』, p.99.)

불어로 침묵 앞에는 남성형 관사가 붙는다. 가스통 바슐라르도 침묵(le silence)이라는 말이 남성적인 견고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들이 그것에 명령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바슐라르는 침묵은 본래 여성적인 것으로서, “그 공간을 남성적인 것으로 바꿔놓은 것은 그것의 풍요함을 모욕하는 것”⁷⁾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여성적인 ‘풍요함’으로 간주된 침묵의 정체를 해명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성 해독의 열쇠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말이다. 여성의 말이 생생한 육성을 얻기 시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법’으로 명명되는 권위적인 언어의 절대성을 회의하게 되는 순간부터이다. 그것은 침묵을 강요받기 이전의 침묵, 즉 ‘아버지의 법’이 아직 작동하지 않은 전오이디푸스 단계의 언어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여성의 말이 산문적이기보다는 운문에 가까운 이유는 이 점과 맞닿아 있다.

전오이디푸스 단계는 여자 아이가 어머니와의 상상계적 일체감 속에서 느끼는 순수한 욕망이 존재한다. 프로이트는 성기능에 쓰이는 리비도는 ‘오직 하나’임을 강조하고 “여성적인 리비도라는 분류는 어떻게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⁸⁾고 부인함으로써 그 유일한 리비도는 남성적인 것이라고 단언하였지만, 프로이트에 의해 무시된 모녀간의 전오이디푸스적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여성성 회복의 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성 작가들이 여성의 글쓰기는 몸을 쓰는 것이며 자이를 쓰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유한다.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에서 김혜순이, 여성의 말은 어머니의 말이며, ‘자연’인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내가 말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유전자를 하사해준 생물학적 통로로서의 어머니를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

7) 가스통 바슐라르, 김현 역, 『몽상의 시학』(기린원, 1989), pp.56~57.

8) 프로이트,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앞의 책, p.187.

서의 입장,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p.84.)

‘어머니’는 전오이디푸스 단계의 어린 아이의 환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물로서, 이름짓기와 문법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다.⁹⁾ 그 힘과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로부터 여성성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것은 여성의 위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그러나 상상계 속의 만족은 공허하고 위태로울 수가 있다. 그것은 자칫 사회적으로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는 혼자만의 수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말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억압이 원천이 존재하는 현실 위에 발을 디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상계의 언어를 상징계에 끌어들이는 이리가라이나 크리스테바의 통찰은 매우 의미심장하다.¹⁰⁾ 여성이 에세이를 통해 시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 또한 상상계의 흔적을 건져올리는 것이지 결코 상상계 안으로 파고드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성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운문의 형식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여성 자신의 고유한 말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전혀 다른 언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성의 말은, 그것이 독백이든 저항 담론이든 광언이든 결국, 남성의 언어를 빌려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이 잠재의식이나 침묵 속에 가두어둔 말을 꺼내고, 어머니의 말을 하려는 것은 현실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남성의 논리를 모방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타협책이나 다름없다.

9) 토털 모이, 임옥희·이명호·정경심 공역,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한신문화사, 1994), p.134 참조.

10) 이리가라이는 상징계에서 감지된 여성의 언어를 ‘액체성’(이리가라이, 앞의 책, p.147 참조)의, 유동적인 것으로 보았고, 크리스테바는 코라(chora, 그리스어로 폐쇄된 공간, 자궁을 의미하는 말)의 언어, 즉 모순, 무의미, 파열, 침묵, 부재 등(토털 모이, 앞의 책, p.19 참조)으로 파악했다.

4. 대화를 통한 존재의 구축

일반적으로 에세이는 시, 소설과 더불어 문자로 기록되는 기록문학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여성 에세이는 대화와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비문학적 속성을 강하게 지닌다. 앞에서 살펴본 에세이의 운문적 성격이 상상계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공허한 독백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대화적 속성이다.

주체가 상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을 초월한 문제이다. 정상적인, 또는 상식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은 상상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상징계적 질서 안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기표의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의미 생산의 장을 열어놓음으로써 가부장적인 언어의 감옥을 열어제치는 것이다.¹¹⁾ 그 기표의 놀이를 지속시키고 확장시키는 작업에 수반되는 것이 대화이다. 왜냐하면 대화적 언술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다원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에세이에 속하는 글쓰기 중에서도 특히 편지와 자전적 글쓰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접촉성이 강한 언어를 질료로 삼으면서도 타인과의 소통을 지향한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여성과 이상적으로 만난다. 『말의 귀환』에서 김정란은 박근혜 의원을 소재로 한 글을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러한 말하기 방식을 김정란은 다음과 같이 '여자의 말'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 칼럼이라는 공적인 언어의 장소에 이렇게 편지 형식의 개인적인 어법으로 글을 쓰는 것이 옳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면은 여성신문이고, 여성들의 말하기 방식은 남성들의 말하기 방식과 사뭇 다르다는 점이 저에게 용기를 내게 하는군요. 여성들은 딱딱한 바깥의 언어로 선언하지 않지요. 여성들은 내밀한 안의 언어로 상대에게 말을 걸고 소통을 구합니다. 여성들의 말은 가상

11) 토릴 모이, 위의 책, p.126 참조.

의 청자를 상정합니다. 그녀들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 관여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이런 호칭도 이해해주시겠지요?)에게 정말로 말을 거는 형식으로, 여자의 말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말의 귀환』, p.244.)

편지글이 ‘여자의 말’에 가까운 이유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점은 그것이 말의 논리성이나 통일성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면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은 일상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상황적 조건 때문에 사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왔다. 여성이 이처럼 주변적이고 파편화된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글이 비논리적이거나 단상에 가깝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점에서 편지는 여성의 어법을 비교적 잘 흉내낼 수 있는 글쓰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편지가 지닌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특정한 수신자를 상정해놓은 글쓰기라는 점일 것이다. 특별히 이 점에서 편지는 일방적이고 단정적이기보다는 대화적이고 유보적인 언술을 지향하는 여성의 말을 닮아 있다.

자서전은 편지처럼 적극적인 소통을 구하지는 않지만 타인을 향해 자기 삶의 편력을 드러내어 공감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대화적이다. 여성의 에세이는 넓은 의미에서 여성의 자서전이다. 여성 작가가 자전적 진술 속에서 자아를 재발견하고 싶어하는 것은,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 진술 방식이 다른 방식의 글쓰기에 비해 비교적 내적 욕망을 좀더 충실히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의 자서전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의 자전적인 글은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과 자기 도취의 산물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자서전은 자기 정체성의 모색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주로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그것은 지나간 일을 종결시키거나 봉합함으로써 구해지지는 않는다. 여성에게 있어 정체성의 탐색은 지속적으로 완성해가야 할 미해결의 과제이다. 이는 여성의 자서전에서 다루어지는 경험이 대부분 대

인 관계적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자서전은 원래 공중이라는 독자를 향해 작가의 공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남성 중심의 문학장르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성이 자서전 혹은 자전적 형태의 글을 쓸 경우 남성과 남성이 이룩한 문화의 장 속에서 타자로 지칭되어 온 여성의 자아는 남성에 비해 보다 절실한 존재론적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이러한 물음은 곧 자아표현의 욕구와 연결되고 이때 적절한 글쓰기로써 자전적 방식이 채택되는 것이다.¹²⁾

여성은 자신의 경험이 과거의 시간에 갇히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산중(dissemination)되고 분산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김혜순의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성의 글쓰기 방식도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바리데기 연회는 연회자가 그것을 구연할 때마다 단골들과의 새로운 관계망 속에서 새로운 이본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김혜순은 이 점에 주목하여 바리데기가 구연될 때마다 타자(독자)를 통한 역방향의 창작이 텍스트 내부에 개입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씩 같으면서도 다른 무가 속엔 같으면서도 다른 여성이 경험이 부가되고 또다시 만들어지고 해석된다. 그 하나씩의 다른 이본들 속에서 하나씩이 여성 주체가 솟아오르고, 그 주체의 경험적 내용이 정치성을 노정한다. 그러므로 수많은 바리데기 텍스트들의 각기 다른 여성 주인공들은 그 노래가 불리는 현장에서 여성적 담론이 실천을 은밀히 도모하게 된다. 나는 「바리데기」의 그 수많은 텍스트들, 그리고 그 다양한 산포의 모양을 좋아한다.(『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p.35.)

12) 강금숙, 「불과 눈으로 빛는 글쓰기-겨울의 환에 대한 여성적 독서」, 『여성의 글 여성의 삶』(국학자료원, 1999), p.299.

바리데기 설화가 구연되는 동안 무장승은 어느새 타자로 자리바꿈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혜순은 가부장제 여성들의 은밀한 전복적 욕망을 발견한다. 이 때문에 바리데기의 구약 여행은 여성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그리는 여행이면서, 동시에 사랑을 통해 자신의 타자성을 벗어나고자 했던 여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여행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에세이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 또한, 이처럼 여성의 경험에 새로운 경험을 부가시킴으로써 새로운 이본을 창출하고, 나아가 여성의 실존 상황을 전복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전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5. 여성의 말의 기원과 표상

여성은 자신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욱 극심한 분열을 느낀다. 오랜 세월동안 남성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남성의 가부장적 사고를 자신의 본성으로 내재화해 왔기 때문에, 여성은 또 하나의 자신인 내면의 소리와 마주쳤을 때 몹시 낯설어하고 심지어 그것을 부정하기까지 한다. 용케 또 하나의 자신과 화해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될지라도, 그 내면의 소리라는 것은 온전히 여성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어서 남성에게 의해 구축된 세계 안에서는 그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 어쩌다 발화를 시도하면 그것은 세상 속에서 병든 목소리로 취급되고, 다만 다들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차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은 광기로 취급된다.

우리가 정신이라고 믿었던 것 속에는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어온 수많은 감각의 집적이, 그것의 관념화가 굳은살처럼 박혀있지 않은가. 그 속에서 분열된 의식들이 소리치지 않던가. 그런 것을 느끼자 몸 속의 누군가가 저 혼자,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박탈에 병으로 향의한다. 그것을 그들은 병이라고 부른다. 혹은 광기라고도 부른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고착된 상징적 의미를 풍기는 언어로는 도저히 여성의 몸이 병들어 내지르는 목소리를 옮겨 실을 수가 없다.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p.110.)

오늘날 여성에게 주어진 과제는 여성 고유의 언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섬세한 경험들을 더욱 충실하게 증언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남성적인 **담론**을 모방하는 한은 결코 여성의 경험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남성의 언어를 빌리지 **않는**다면 그 말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가 그대로 노출될 때 여성의 언어는 광기의 언어, 망설임의 언어가 된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 에세이들은 지극히 지적인 사유의 산물이므로 이들의 화법을 텍스트로 삼아 여성 언어의 특징을 살피기는 어려우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미친 말’(김정란)이나 ‘여성성에 들린 말’(김혜순)은 여성의 언어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광기의 언어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불화와 **충돌**을 의미한다. 그래서 크리스테버는 전오이디푸스 단계의 어머니상과 강한 유대감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무의식의 발작적 힘’을 상징질서를 폭발시킬 정도로 발산시키면 주체가 광기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¹³⁾ 김혜순이 광기의 언어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여성이 이러한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순간**을 ‘여성성에 들린다’¹⁴⁾고 표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성에 들리는 순간, 여성은 자신의 내부에 실재하는 것을 실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신과 싸우는 또 하나의 자신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이 싸움을 온전히 묘사할 수 없는 자신의 혀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 억압되었던 여성의 말이 발화되는

13) 토릴 모이, 앞의 책, p.14 참조.

14) 김혜순, 앞의 책, p.19.

방식은 남성들이 전유해온 말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가부장제적 질서 속에서 그것은 혼란이나 광기로 인식되고 그 차이는 곧바로 차별의 근거가 된다. 이처럼 광기의 언어가 상징계와 상상계의 충돌 때문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라면, 망설임의 언어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경계에 거처는 언어이다. 그것은 상상계라는 피신처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합리적인 문법 또한 선뜻 허락하지는 **못하는** 말이다. 단선적인 남성 언어의 사용을 유보하는 이 말에는 남성에게 의해 거부된 여성의 욕망, 낯선 대상에 대한 공포의 감정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분절된 상태로 발화되는 망설임의 언어도 결국 논리를 앞세운 남성의 언어 앞에서는 열등한 언어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이러한 광기, 망설임, 실언 등이 증상이나 꿈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타자를 향한 메시지'¹⁵⁾라는 점이다. 억압에 의해 무의식에 가두진 생각이나 기억들은 왜곡된 **증상**으로나마 본래의 위치를 되찾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증상처럼 나타나는 여성의 언어는 억압에 대한 저항이며, 억압되기 전의 경험과 욕망에 대한 무한한 애착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는 여성의 말을 비논리적이다, 광기의 언어다, 망설임의 언어다 라고 규정만 할 뿐 그것의 건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데 있다. 에세이를 통해 여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어눌하고 뒤틀린 말에서, 그 증상들 속에서 풍부한 메시지들을 읽어달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표상이 아니라** 그렇게 밖에 표현될 수 없는 그것의 기원이기 때문이다.

15) 브루스 핑크,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민음사, 2002), p.201.

6. 마무리

여성과 ‘여성의 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산된 데에는 사회의 지배규범에 이의를 제기하고 주변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크다. 여성 문제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여성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담론화**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왜 여성이 말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중요한 화두로 삼았지만, 이제 그 관심은 여성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여성의 ‘혀’의 기능을 회복시키기는 노력으로 가시화 되었다.

에세이는 구체적인 삶을 소재로 하며, 형식과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글쓰기이다. 에세이의 이러한 특징은 여성에게 매우 친근하다. 여성은 자신이 접촉하고 있는 일상의 경험을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에세이는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여성은 지식과 권력을 독점한 남성들로부터 ‘타자’로 취급되어 말할 권리를 거부당해 왔기 때문에 글을 쓰는 일로부터도 배제되었다. 에세이는 그것을 전유하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회의 지배적 담론의 성격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성 에세이가 범람하고 있는 현상은 사회 구조 변화의 한 징후로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김정란의 『말의 귀환』과 김혜순의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을 중심으로 여성 에세이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정란은 여성의 말이 비록 분열되고 파열된 상태로 발화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미친’ 언어로 취급될지라도 남성적 언어에 동화되지 말고 그 다양성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김혜순은 ‘바리데기 연희’를 구연하듯, 여성의 말도 대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여성성을 창조하고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의 에세이를 통해 크게 두 가지의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시적 언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구비문학

적 속성을 지녔다는 점이었다. 여성 에세이의 운문적 속성이 강해지면 그것은 상상계적 언어, 혼자만의 언어에 머물기 쉽다. 이러한 위험성을 모면하게 하는 것이 에세이가 지닌 또 다른 성격, 즉 대화적 속성이다.

그러나 여성의 말이 기본적으로 다성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성적 글쓰기의 전범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 점은 여성의 말이 지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계일 수도 있겠다. 오늘날 여성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로운 여성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섬세한 경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여성의 말과 글에서 풍부한 메시지를 읽어내는 일이라 할 것이다.

■ 필자 : 동덕여대 강의 전담교수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Writing Projected into
their Essays:**

Focusing on “The Recovery of Verbal Expressions” and
“What is it that women write”

Lee, ju-mi

As you know, essays, dealing with ordinary daily lives, are a way of writing free from formality and logic. That is why essays seem familiar to females. Females strive to prove their own existence through essay writing, revealing vividly their daily experiences

Essays have taken the role of revealing the distinctive dominant voice in a specific society according to whoever the exclusive writers are. In the past, essay writing seemed to belong solely to males. Females were treated as the others by males who monopolized knowledge and power. They were also denied the right to verbal expressions. As a result, they were kept out of the field of writing as well. Thus the emergence of prolific essays written by females could be seen as an indication of certain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It is quite notable that there are many female poets writing essays these days. Essays have been understood as a type of prose. However, they have become tinged with poetic properties as many female poets get to write essays. Female essays were established neither due to purely artistic impulses, nor due to educative motives. Females are trying to

recognize their own existence, that is, to extend their subjective way of life through essay writing. They have been forced to be silent, not by their own choice, but by outside pressures. Therefore, there are a variety of emotions permeated in the female verbal expressions. As essay writing could be a remedial measure to restore the damaged self, it strongly suggested that women should exploit essay writing earnestly.

In addition, female essays car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al folk literature in that they are aiming for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It is this communicative feature of female essays that prevents them from indulging into an empty monologue due to their poetic element. Women want their experiences not to be confined in the past, but to be constantly reinterpreted over the present and future experiences. As I mentioned above, female essays are on the borderline between the prose and the verse. As the poetic feature of female essays grows intense, they could be locked up in the imaginary language, that is, the isolated language. It is the element of this oral folk literature, another feature of the female essays that enables t to avoid that risk.

Ms. Hae-Soon Kim emphasizes that women should try to create and complete the femininity persistently in their verbal expressions through communication, as in 'Ba-ri-dae-gi' drama. Ms. Jeong-Lan Kim demands that women should maintain the diversity of female verbal expressions, not assimilated to the masculine language, even if they are not consistent and torn apart and thus treated as insane language. However its still complicated to suggest the model how to femininely write. Thats due to the fact that the female verbal expressions are presumed diverse. This aspect could be both the potentiality and the limits of female verbal expressions. The task women are confronted with

now is not to make up a new female language, but to reveal rather earnestly those subtle, delicate feminine experiences.